Commuter Marriage 가정경영 실태와 문제*

Home management performance and problem of commuter marriage*

원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채 옥 희

Wonkwang university
Prof. : Ock-Hi, Chae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Ⅳ. 연구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n this study commuter marriage was defined as a family in which working husband and wife, who have professional job having family orientation and job orientation, come and go lived separately for more than days a week for working in different region.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living separately the merits and demerits of commuter marriage, relation with family, family finance and household work for twelve case wives fitted for above definition, and the findings are as the following.

The main cause of commuter marriage was wife's work place. The merits of commuter marriage were that wives can devote to their own increased time and that they had fresh feeling to their husbands. The demerit were mental burden to mother-in-laws and their mothers who take charge of home management and the high cost of living for double housekeeping.

In the area of relation with family, they and their husbands call above one time per day for communication although they live separately for three or four days, do not insist on norms of living together, and overcome difficulties of commuter marriage well.

In the area of family finance six couples used allowances method. They have high living cost like traffic expenses, telephone charges, and housing expenses because of double living.

In the area of household work, they mainly manage family life with the help of household helpers like mother-in-laws or their own mothers.

*이 논문은 1997년도 원광대학교 주산재단 해외파견 연구지원비에 의해서 연구됨

I. 서 론

우리 나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기혼여성의 47.1%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여성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중 전문, 기술 및 행정직에 종사하는 여성도 9.6%에 달하고 있다(노동부, 1995). 이는 구미 제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기혼여성의 전문직 진출도 계속 폭넓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문직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고 휴일이나 휴가만을 가족과 함께 지내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대학교수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가정형태를 Commuter marriage라 부르며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실태에 대한 연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실태도 정확하지 않다. 1990년대의 연구에 따르면 28%정도의 가구를 비동거가족으로 보고 있고(한국보건사회원, 1990), 그중 가장인 남편이 지방에 근무하는 경우 가족 모두가 가장의 근무지로 이동하지 않고, 취업자인 남편만이 이주하고 일주일 또는 일정 단위로 집에 오는 주말부부 가족 형태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손승영, 1995). 이처럼 남편만이 가족과 별거하여 먼 거리에서 취업하는 주말부부 가족의 형태와는 달리 1980년대 이후로는 맞벌이 부부의 직업 이동성으로 인하여 여성이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특히 여성의 전문직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주말부부 가족이나 Commuter marriage 가족이 계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Gross, 1980; Grove & Hom-Wingered, 1991).

이러한 사회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비동거가족, 주말부부가족이라는 명칭으로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를 다루고 있으나 주로 남편만이 일하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연구되고 있다. 직장 때문에 별거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별문제가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결손가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성별 역할 규범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만이 가정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과 직업을 양립하여 생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우기 주부 자신의 일이나 직장의 일로 인하여 주부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가족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남편과 자녀가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부 자신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가정을 유지하려는 가정지향성과 직업을 가지려는 직업지향성은 인간의 행위이고 그 양립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기혼 여성에게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과제인 동시에 사회 과제이기도 하다.

전문직 맞벌이 부부의 별거에 따라 일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는 사회에서 현상타개를 위한 대책과 개인적으로는 본인들의 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mmuter marriage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가정경영에 관련된 주부 자신 생활의 장·단점, 가족관계, 가계관리, 가사노동만을 분석하여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맞벌이에 의해 나타나는 갈등과 문제를 극소화할 수 있는 대안의 탐색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Commuter Marriage 의 정의

직업으로 인하여 떨어져 사는 가족 유형은 비동거가족, 주말부부가족, 분거가족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이들은 일반적으로 주 부양자인 남편의 직업으로 인하여 남편만 떨어져사는 전통적인 남편 외유형과 맞벌이 부부의 직장이 서로 먼거리에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따로 거주하며 자주 만나는 별거왕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Commuter marriage는 후자의 별거 왕래형이라고 말하며 가정생활과 직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부부로서 이들의 직업은 대개 전문적, 기술적 직업이나 관리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성격의 일로서 관리직 공무원이나 교사, 대학교수, 간호사, 법조인, 기자, 의사, 정보처리

등이다. 柚井孝子(1993)는 Commuter marriage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전문적, 기술적 직업이나 관리직에 종사하는 부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목표로 하는 지망자나 후보자도 포함한다. Gross(1983)는 Commuter marriage는 배우자들이 분리된 거주지에서 한 주일에 며칠 동안은 별거하여 살고 그 기간이 몇개월이상인 부부라고 하였으며, 장거리 가족(long-distance), 두지역가족(tow-location), 또는 기혼독신(marriage-single) 으로 표현하고 있다.

Gastel & Gross(1984)는 같은 직업을 가진 부부가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직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가정생활형태로서 적어도 주중에 3일 이상 별거하는 형태라고 하였다. Blair(1992)는 Commuter marriage를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의 한 방법으로 보았으며, 부부는 주중에는 직장에서 직업인으로서, 주말에는 가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아내들이 직업적인 장애를 가져온다고 호소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하여 파트타임 고용이나 다른 고용제도 등 여러 가지 취업형태를 시도하여보고 Commuter marriage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Commuter marriage는 맞벌이 부부에 의한 일과 가정의 협력의 한 방법이라고 보았으며 현재 미국내의 약 100만 쌍의 부부가 이러한 생활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들은 일의 세계에서 성공을 목표로 하면서 가정생활을 잘 유지해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70년대 후반 미국의 비지니스 엘리트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별거, 왕래를 그들의 결혼과 일의 조화행동의 하나라고 보았다. ホ-ン川嶋瑤子(1988)도 맞벌이 부부중 특히 아내의 입장에 초점을 두어 직업에서 성공하려는 야심을 가지는 여성들의 최대의 고뇌는 가정과 직장 생활의 양립으로서 그 해결을 위해서는 부부가 별거를 하면서 직업을 계속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의에서 보면 Commuter marriage는 맞벌이 부부의 생활양식중의 한 형태로 갈등해결책, 즉 일을 계속하면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비동거가족, 통근자가족, 분거가족, 주말부부 가족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이는 광범위하게 표현되는 의미로서 적절한 단어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지향성과 직업지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부가 주 3일 이상 별거 생활을 하는 별거결혼가족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원어인 Commuter marriage를 사용하기로 한다.

2. Commuter Marriage 결정요인 및 장단점

Commuter Marriage는 부부가 떨어져서 같이 생활하는(living together, apart)것을 선택하는 상태로서 남편의 결정에 따른 별거와는 다른 것으로 아내와 그 직업이 결정요인이다. Winfield(1985)는 Commuter marriage를 하는 부부들의 연령, 교육수준, 직종, 계층, 주거형태, 자녀유무, 만나는 빈도등은 다양하지만 그것이 계시되는 공통적 상황은 4가지로 식별하고 있다. 첫째 같은 전문직에 있는 부부, 두째 남편의 전근이 동기가 된 경우, 세째 일찍부터 전문직을 가진 부부, 네째 경제적 동기에서 시작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형태에서 공통되는 중요한 특징은 부부의 친밀한 관계와 직업에 전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ommuter marriage는 대개 자녀가 없는 신혼기 부부나 자녀 양육을 담당해줄 대리인이 있어서 양육의 책임이 극히 적은 경우,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부인의 직업에 대한 성취 동기가 높고, 남편의 지지를 받으며 수입이 많은 부부, 업무시간이 융통적이어서 서로의 근무지가 비교적 가까운 경우에 잘 기능한다(Gerstel, 1977; Gross & Gerstel , 1984). 이 라이프 스타일은 직업과 가정생활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기 때문이다.

Gerstel과 Gross(1984)도 Commuter marriage는 종래의 별거와는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종래의 별거는 남편의 직업만이 별거를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내는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Commuter marriage는 아내는 직업을 가지고 집에서 살고, 남편만이 이동하거나 남편이 집에서 살고, 아내가 직업을 따라 다른지역으로 이사해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두째 종래의 별거가 비자발적, 의무적인 것에 비하여 자발적인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세째 종래의 별거의 주된 동기는 수입의 증대이지만 Commuter marriage인 경우에는 직업의 경력이 깊어짐에 따라서 얻어지는 개인적인 만족이다. 네째 두개의 주소로 세대를 달리하고 한쪽의 배우자가 한곳에 정기적으로 머무르던가 한쪽 사람은 이와 관계없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Commuter marriage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별거와는 다르며 이들은 결혼의 지속을 바라고 별거결혼한 사람들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신생활과 유사하다.

이들의 장점으로서 직업적 성취에 몰두할 수 있고, 재회의 흥분과 기쁨을 가지며, 가사분담이 보다 평등해지거나 재분배 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남편과 동거하는 여성들에 비하여 가사 분담에서 보다 자유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별거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느낀다는 연구(Gross, 1980)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단점으로는 서로 분리된 생활의 운영을 각자가 분담해야 하며, 재회시 종종 서로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기도 하며 별거와 왕래의 반복되는 생활속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별거 생활은 이중적 가구운영에 소요되는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는 큰 이득은 없다고 한다(Gerstel & Gross, 1984). Groves와 Horn-Fingered(1991)은 Commuter Marriage부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개인적 관점에서 독립의 기회와 자율성을 획득할 수가 있고, 가족의 관점에서는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때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 가족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다고 한다. 직업영역에서는 부부 각자가 동등하게 가족의 제약없이 직업생활을 추구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보통의 가정에서처럼 매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되어 소외감, 외로움을 경험하는 단점이 있다고 한다.

Maples(1981)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별거왕래와 대단히 먼 거리의 전국횡단관계로 구별하고 각각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의 장점은 부부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평등하게 노력하는 점이고 단점은 자녀가 있는 경우 한쪽이 필연적으로 자녀의 대부분을 책임져야하며, 여행이나 기타 일의 준비로 주말이 자유스럽지 않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한편 부부가 서로 대단히 먼 곳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나 경비관계로 월1회나 3개월에 1회이상 방문 할 수 없는 관계이다. 이러한 경우에 장점은 각자의 직업에 충실하기 때문에 직업적 명성을 얻게 되어 두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다는 것이다. 단점은 두사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므로서 부부 사이의 애정이 약화되기 쉽다는 것이다.

柚井孝子(1993)은 별거결혼가족 부인들의 가정생활의 장점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장점으로는 ① 자신만의 생활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② 가사노동시간이 감소되며 직업에 몰두할 수 있다. ③ 젊은 시절(독신)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다. ④ 떨어져 사는 남편을 마음속으로 안타까워 한다. 단점으로는 ① 가사육아를 전적으로 혼자서 책임지거나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 부담이 크다. ② 매일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외로움이 증가한다. ③ 부재중인 남편대신에 원조를 받은 친척이나 시부모님께 대해서 부담감이 생긴다.

이상과 같은 장점인 평등한 부부관계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ホ-ン川嶋瑤子(1987)는 여성의 취업이 부부의 권력관계를 대등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문직 부부에서도 많은 경우 역할의 남녀 평등한 분담은 없고 여성의 일만이 가정에 남아 있으므로 별거하면서 직업을 갖는 것은 스트레스가 적고 평등한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Commuter marriage가 바람직한 생활스타일이라고 하였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등 많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는 이중역할 수행이라는 어

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더우기 전문직은 오랜 기간의 수련을 거쳐서 획득한 체계적 이론과 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높은 직업적 책임감과 경쟁이 요구되는 직종이다. 따라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하고, 직업과 가정생활에 몰두할 것이 기대되고 있으므로 항상 역할과 갈등, 긴장의 연속이다. 그러나 Commuter marriage는 위에서 밝힌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전문직여성들에게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3. Commuter marriage의 가정경영

가정의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하여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가정의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일련의 모든 행위가 가정경영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경영행동을 맞벌이 부부의 관점에서 가족관계, 가계관리, 가사노동의 측면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가족관계

일하는 어머니들에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자녀양육, 남편과의 관계등 직업적 역할과 가정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데서 오는 이중역할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정혜정(1985)은 취업주부가 자녀양육, 남편과의 관계에서 역할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별거결혼가정의 가족관계에 대한 문제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부부간의 Communication과 자녀양육이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이분야에 대해서만 고찰한다.

① 부부간의 Communication

부부는 결혼생활을 통하여 상호작용하므로서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생겨나고 유형화되어, 부부간 상호작용의 본질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한 중요성이 인정되어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부의 연령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별거결혼가정의 경우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다보면 상대적으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짐에 따라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감정표현등이 어렵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호방문하거나 전화, 편지로서 연락을 취하므로서 매일의 직접적인 접촉을 보충한다는 것이다. 柚正孝子外 3人(1993)의 조사에 의하면 주1회 주말마다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들중 60%는 남편이 아내쪽으로 방문하며, 상호방문은 10%이다. 약 반수가 매일 전화를 걸고, 전화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통화시간은 보통 2-3분간의 통화이나 주1회 통화하는 경우에는 1-2시간을 소비한다고 하였다.

김경은 · 정옥분(1998)의 연구에서도 남편과 적어도 하루에 1회이상 전화통화를 할수록 결혼적응이 높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별거결혼가정 부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전화임을 알 수 있다.

② 부모자녀관계

맞벌이 부부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집을 비우는 시간동안의 자녀양육대행이나 교육에 대한 문제는 항상 연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어머니의 취업은 아동에 대한 적절한 대리양육,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 가정의 사회적 계층등의 요인이 작용하므로써 부모로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취업유무 그 자체보다는 취업에 대한 자발성 여부가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격리불안, 역할갈등에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조복희 · 현온강, 1994).

주말부부 가족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아버지의 부재와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아버지가 집에 오는 횟수, 통화횟수는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은 · 정옥분, 1998). 그러나 비동거가족의 경우 자녀의 교육과 보호 및 양육과 통제의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에게 주어진 결과 가족내에서 자녀에 대한 모권의 강화와 부권의 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구적 측면에서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자녀훈육과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김태현 · 박숙자, 1994). 위와 같은 아버지의 부

재로 인한 문제는 어머니의 부재시에도 더 많은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2) 가계관리

취업여성들의 취업동기는 경제적인 요인,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으로 맞벌이에 의해서 증가된 가계소득은 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가계를 관리하는 형태는 지역과 시대, 사회계층, 소득수준, 가족생활주기등 가족유형에 따라 다르다(Pahi, 1989).

柚正孝子 外 3人(1993)은 가계관리에서 부부가 완전히 독립하여 관리하거나, 공동경비만을 내놓고 각자가 관리하는 분리형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별거에 의한 이중생활로서 교통비나 통신비가 많이 들지만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해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근무지에서의 가족별거수당과 단신부임수당, 귀가교통비의 지급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정빈외 7인(1994)은 생활비의 관리 유형을 부부가 전적으로 책임, 생활비, 저축 부부간 분담, 큰비목 생활비 부부간 분담, 대부분 남편이 관리하는 등 4유형으로 분류하였다.

Pahi(1989)는 소득관리와 가계지출 책임여부에 따라 가계관리 유형을 전액 남편이나 아내관리형, 일정액할당관리형, 공동관리형, 개별관리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맞벌이 가정의 재정관리는 두 소득을 합하여 관리하느냐 개별관리하느냐하는 내용과 두 소득을 합했을 때 합한 소득을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가계관리권이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지수·이연숙(1998)은 도시 맞벌이 부부의 금전관리를 부부의 소득합산 방법과 가계지출책임을 기준으로 하여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아내완전관리형, 아내위주 남편 딴주머니형, 아내위주 남편일부 참여형, 완전공동형, 일부공동·일부분리형, 다중형이다. 이중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전관리 유형은 아내완전관리형이고 다음으로 아내위주·남편딴주머니형이며 일부 공동, 일부분리형이나 다중형을 사용하는 부부는 소수라고 하였다. 이처럼 소득이나 생활비와 같은 가계관리 유형은 다양하다.

3) 가사노동

가사노동관리 분야는 취업주부가 과중한 이중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정과 가정밖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는 주로 자녀가 가사노동의 조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주, 1984). Schultz외 2인(1989)은 대학교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반수이상이 가족원이나 가사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도움을 받은 경우는 파출부, 친척, 정원사, 친구들의 순서로 도와준다고 하였다. 가사분담형태도 31.7%가 전통적 성역할에 기반을 둔 분담이고 18.3%의 응답자는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혼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은(1997)은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에 비하여 가사노동 참여를 거부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87%로 외형적으로 남성들의 가사노동참여는 전통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leck(1985)는 남편의 전통적 성역할 태도, 뛰어난 아내(supper-wife)를 기대하고, 남편의 가사기술수준이 낮으며, 힘들고 시간소모가 많고, 아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더하여 임정빈(1992)은 우리나라 직장인은 직업을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부인을 대신해서 가사를 수행하거나 자녀를 돌보아줄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태도는 Commuter marrige에서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사노동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Commuter Marriage의 정의는 가정지향적이면서 직업지향성을 가진 부부가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면서 각자 다른 지역에서 취업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 이상은 별거하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별거결혼가족이라고 규정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들의 특성

사 례	주부 연령	주부 거주 지역	남편 거주 지역	남편 직업	남편 연령	가족수	가족 형태	자녀수 및 구성	결혼지속기간	별거 연수
1	37	전주	울산	회사원	41	6	확 대 (시부모)	2 유아 (남) 유치원 (여)	9	9
2	39	전주	서울	공무원	44	3	핵가족	1 유치원 (여)	6	6
3	39	익산	서울	연구원	39	5	확 대 시부모	1 유아 (남)	3	3
4	42	익산	천안	교수	46	5	핵가족	3 초등5 (남) 초등3 (여) 초등1 (여)	13	12
5	40	익산	서울	교수	41	6	확 대 (시부모)	2 초등1 (여) 유치원 (남)	10	2
6	49	익산	광주	교수	52	3	확 대 (시부모)	1 고등1 (여)	18	15
7	48	군산	일본	회사원	53	4	핵가족	2 고등1 (남) 중등3 (여)	20	12
8	51	전주	서울	회사중역	55	4	핵가족	2 대졸 (여) 대재3 (남)	25	10
9	53	익산	서울	대학교수	59	4	핵가족	2 대학원 (남) 대재2 (남)	25	25
10	54	전주	서울	사업	58	5	확대가족 (친정母)	2 대재4 (남) 대재1 (남)	26	12
11	35	전주	춘천	대학교수	38	6	확 대 (시부모)	2 초등3 (남) 초등1 (여)	8	3
12	45	익산	서울	증권회사	48	5	확 대 (친정母)	2 대재1 (남) 중등3 (여)	23	2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은 이 정의에 맞는 부부이다. Commuter Marriage를 선발하는 결정적인 요인을 여성이나 그 직업이라고 생각되어 조사하는데는 여성측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개별면접을 통한 사례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주로 전북권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수인 여성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며 세부적인 특성은 다음 <표 1>에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commuter marriage의 결정요인

Commuter Marriage 시작은 부부의 한쪽 또는 양쪽의 전근, 연수나 취직, 또는 전직 등 근무지 변경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Winfieled (1984)의 유형에서처럼 남편의 전근이 동기가 되어 별거를 시작한 경우는 한 쌍이다(사례 4). 결혼초기부터 부인의 전문직으로 인하여 직장 때문에 별거결혼을 한 부부는 4쌍(사례 1, 2, 3, 9)이며, 결혼후에 부인의 직장이 지방으로 되었기 때문에 별거결혼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7쌍이다. 이와같은 결과는 종래의 남편의 직업이 동기가 된 주말부부 가족과는 구별된다.

대다수의 전문직 여성들이 별거를 결정하게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지적하면 ①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려고 하며, 그 희망을 이해하고, 남자는 직업, 여성은 가정의 일이라는 고정

관념에 구애되지 않는 남성을 남편으로 선택한다. 예를 들면 여성도 직장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하는 것은 당연하며, 남자에 의존하려는 여자는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별거결정은 이와 같은 이유만이 아니라 ②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③ [유연한 결혼관이나 가족관계] ④ [가사, 육아의 협력자가 있다]등이다(山田正喜子, 1987).

별거결정요인은 ①과 ②가 교수들 사이에서 가장 높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별거하는 데는 망설임도 없다. 전문직이나 기술직은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해야하고 직업에 몰두하는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②는 모든 사례에 적용되고 있다. ③은 주부의 존재방식 특히 그 거주형태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가이다.

"영원히 별거결혼가족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결혼 전에는 많이 걱정하였다. 그러나 별거하므로서 가사에 메달리지않고 결혼 전에 하던 것처럼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 1, 2, 3, 9)

결정요인 ④는 남편이 바빠서 가사, 육아에 협력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남편대신에 협력자를 두고서 가정생활을 해왔다. 부인이 혼자서 임지로 부임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중 5쌍은 시부모와 동거하고, 2쌍은 친정어머니가 살림살이를 도맡아하고(사례 10, 12), 1쌍은 이웃에 사는 친 여동생이 자녀를 돌보아주며(사례 7), 2쌍은 자녀가 성장하였으므로 남편과 자녀들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사례 9, 10).

종래에도 전문직 취업주부에게는 가정고용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다른 여성을 통해서 주부의 이중 역할을 감수하던 것이 전문직 부부의 오래된 역할 유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확대가족을 통한 가사수행 의존은 구미가족과는 커다란 차이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이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별거를 하지 않아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1년정도 서울과 전주를 1주일에 4일간 매일 왕래하면서 하루에 8-9시간을 도로상에서 허비하고 집에 가면 항상 피곤하여 가족에게 짜증만 부리게되고 자신의 일에도 충실하지 못하여 결국 본인이 이동해 왔다."(사례 8)

이처럼 Commuter marriage 결정요인은 앞에 제시한 동기만이 아니라 본인이 육체적 ·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동해 온 것이다. 따라서 별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별거를 5년이상 15년 이하를 경험하고 있는 사례는 8쌍으로 가장 많으며, 3년 미만은 3쌍이고 25년된 사례도 1쌍이 있다(사례 9). 부부가 주말마다 만나는 사람은 8쌍이며, 2주에 한번정도는 3쌍이고 방학 때나 휴가기간에만 만나는 부부도 1쌍이 있다(사례 7).

아내의 반수가 근무지의 임대주택이나 자기소유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남편의 집에서 사는 경우는 1쌍이다(사례, 3). 남편은 해외근무이고 자녀는 서울집에 있고 지방을 오가며 생활하는 여성도 1건이고(사례 7), 남편과 부인이 각자의 임지인 지방에 근무하며, 주말마다 자녀들이 있는 본거지인 서울에서 만나는 사례도 둘이나 있다(사례1, 11). 아내와 남편을 비교하면 집을 가진 비율이나 자녀와의 동거율은 남편 쪽이 높다. 즉, 대부분의 사례에서 남편과 자녀가 살고 있는 집을 본거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래의 주말 부부 가족과는 다른 형태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전문직 여성의 특성이며 모든 교육, 문화시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학교 교육상의 문제로 서울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Commuter marriage의 장점과 단점

본 사례에서는 장점을 지적하는 사람들과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다. 장점은 여성자신의 직업으로 인하여 이동해 왔으며 자녀양육기가 지난 45세 이상의 여성들이다(사례 6, 7, 8, 9, 10, 12).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자녀양육기에 있는 젊은 층에서 많다(1, 2, 3, 4, 5, 11). 이는 직업을 계속하려는 의욕을 가진 여성에게서 자녀양육이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장점을 지적한 柚井孝子(1993)의 예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별거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신만을 위한 생활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거할 때는 시간이 있으면 우선 일하게되고, 다음으로 가족을 위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다. 그러나 혼자 있으니 TV도 보고, 연주회 연습도 마음껏 하고, 여가도 즐긴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유로 행동하는 것은 실로 유쾌하다."(사례 8, 10, 12).

"남편이 혼자서 취임해 가는 경우에는 가정생활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지만 여자혼자서 취임해 가는 것은 즐겁다. 자유가 많고,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저녁 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같은 동료와 대화할 기회도 많고, 자유스런 기분이다."(사례 1, 7, 11).

"남편과 항상 함께 있으면 결점만 눈에 띄지만 별거, 왕래생활을 하게 되니 자신과 남편을 이해하게되고, 일에 몰두하고, 독신으로 돌아간 기분이다." (사례 1, 2, 3)

"남편에 대해서 신선한 느낌이며 언제나 신혼기분으로 생활한다."(사례 9).

별거가족의 형태는 젊은층의 부부, 특히 신혼기나 어린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Gross, 1983)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젊은층보다 중년기 이상의 부부에게 이러한 생활형태는 주중 3-4일은 직업에 몰두할 수 있고, 주말 2-3일은 가족을 위한 시간을 보내므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분리되어 좋은 것 같다.

"별거결혼에 따라 남편이 시부모와 같이 서울에서 생활하므로 본가에 가면 시부모님의 기분도 살펴야하고, 나는 언제나 손님 같은 기분이다"(사례 1, 3).

"시부모님께 남편과 자녀를 맡긴 기분이며 며느리로써 아내로써, 어머니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정신적 부담감이 생긴다"(사례 1, 6)

"혼자 있으니까 가사노동은 1인분이라서 간단하지만 휴일이나 주말에 일주일동안의 살림을 한꺼번에 해야하기 때문에 본가에 가면 가정부노릇하는 기분이다. 주말에 한꺼번에 구매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 두고 온다"(사례 8, 9).

"남편은 춘천에서 하숙생활을 하며, 3세된 딸아이와 7세된 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서울에 살고, 어머니 윤씨는 전주에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근무하고 수업이 없는 날이나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 가족과 만난다. 일주일에 3-4일정도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미안하고 살림을 해주시는 시부모님께 죄송스럽지만,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본가를 서울에 두고 있기 때문에 3곳에서 각자의 생활이 이루어지므로 교통비와 전화요금 등 주거비가 많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서로의 일이 중요한만큼 이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자세이다." (사례11)

위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장·단점을 요약하면 장점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증가하여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것과 남편에 대해서 항상 신선한 느낌이다. 단점은 부재중인 아내대신에 가정살림살이를 맡아주시는 친정이나 시어머니에 대해서 정신적 부담감이 있고, 한 주일동안 밀린 가사노동을 주말에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본인의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전문직 취업여성들도 가정경영은 본인의 책임임을 의식하고 있으며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Commuter Marriage의 가정경영 실태와 문제

1) 가족관계

① 부부간의 Communication

부부는 서로 방문하거나 전화, 편지로 연락을 취하게 되므로서 매일의 접촉의 부족을 보충하게된다. 전화 통화빈도는 매일 1회가 8쌍으로 가장 많고, 하루에 2-3회 통화하는 경우도 3쌍이다(사례 1, 2, 3). 그러나 사례 7은 남편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2-3회 정도 통화이다. 대부분이 매일 전화를 하며, 전화빈도가 높아질수록 전화통화의 시간은 짧다고 한다. 전화로서 매일 안부나 생활계획의 변경을 알기 위해서이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화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3-4분간의 통화이다. 매일의 할 일이나 자녀의 건강상태의 이상, 일의 상담이나 푸념등 세세한 것으로 주 1회 정리하여 말하는 경

우는 통화가 길게 되어 1-2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본 조사에서는 남편과 자녀 쪽의 거주지를 본거세대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로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서울에 가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한다. 남편이 부인 있는 곳으로 오는 경우는 3쌍으로서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지방으로 오게되는 경우이다(사례 3, 4, 5).

부인이 방문하는 형태는 부인의 직장 때문에 별거를 하는 경우로 대개 일주일에 3-4일정도 떨어져 있으며, 자녀들이 중학생이상인 사람들이다. 부인이나 남편이 동시에 방문하는 형태는 자녀들이 유아이거나 초등학생이하인 경우로서 본가는 시댁이다(사례 1, 11).

"결혼초기부터 남편의 잦은 출장과 외국근무로 별거결혼가족을 이루면서 부인은 자녀를 출산한 후에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였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12년동안은 동거가족을 이루었으나 부인의 취업으로 다시 별거결혼가족을 8년째 하였는데 이제는 남편의 해외근무로 성장한 자녀는 이웃에 사는 여동생이 돌보며 본인은 서울과 지방을 주말에 왕래하면서 방학때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 전화는 일주일에 2-3회 정도하여 서로의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기간의 별거로 스트레스가 쌓이며, 친밀감이 적어 질 때도 있으나, 자신의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한다."(사례7)

이와 같이 장기간의 별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즉 오랜만에 만난 남편이 어색하게 느껴지며, 서로에 대한 기대로 트러블이 많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서로의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전화요금이나 교통비는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배려가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부모자녀관계

취업여성들은 대부분이 시간적인 제약으로 자녀들의 감독 소홀이나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확대가족일수록 자녀에 대한 걱정이나 죄책감은 낮다고 한다(서동인, 1985).

"결혼전부터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결혼과 동시에 별거결혼가족을 이루었다. 자녀들은 서울의 시부모님께 맡기고, 남편은 울산의 회사에 근무하므로 매주 토요일이면 부부가 시부모댁에서 자녀들과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일찍 각자의 임지로 간다. 아이들을 매일 볼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매주 부모님을 찾아 뵐 수 있어 효도도 하고 아이걱정없이 부부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 좋은 점이 많다고 한다" (사례 1)

"19개월된 남아의 보육을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오는 아침마다 엄마를 붙잡고 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 (사례 3)

사례 2는 주중에는 딸아이와 친정집에 머물고, 주말에는 서울인 남편 집에 간다. 이러한 경우는 직장도 가사, 자녀양육도 쉽게 해결되고 일시적으로 보육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집세도 지불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연령차이가 적고 3자녀를 부인 쪽에서 양육하고 있으므로 아이들이 병이 났을 때 힘이 들었다고 한다(사례 5).

주말에 남편이 부인 쪽으로 오는 경우는 3쌍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녀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자녀들은 응석을 부리거나 투정을 부리며 아버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가 다르다고 한다(사례 3, 4, 5).

"자녀들이 초등학생이 되어도 그들의 보살핌은 유아기 정도의 원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출부를 두게 되며, 저녁시간에는 자녀들의 학습지도와 숙제 등을 보아주게 되므로 근무중일 때만 자신의 시간이다."(사례 3, 4, 5).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와 동거하게 된 딸은 어머니에게 무조건 의존하며,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없으며, 학교수업으로 주말에 오는 아버지와의 대화시간도 없다."(사례 6)

이렇듯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는 점에서 어느 한쪽의 부재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시부모나 친정에서의 자녀양육은 자녀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부인

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서, 무조건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태도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버지가 집에 오는 횟수나 통화횟수 등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경은 · 정옥분, 1998)로 보아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자녀들이 중학생 이상일 때 별거결혼가족을 이룬 사례 6, 8, 10, 11에서는 어머니 혼자서 취임하여 지방에 오게 되므로 어머니들은 자신의 손으로 자녀를 기르지 못하였다는데 대하여 다소 후회를 하면서도 죄책감은 없다고 한다. 한편 자녀들이 독립심이 커졌고,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며, 어머니의 일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 자녀를 가진 어머니는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걱정이 크고, 중학생이상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적은 반면 자녀들이 어머니의 일을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2) Commuter Marriage의 가계관리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부인들이 모든 살림살이를 전화로 하기 때문에 전화통화료가 많고, 주말마다 왕래를 하기 때문에 교통비가 많으며 두세대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비용의 지출이 높다고 한다. 일본의 기업은 단신부임자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원책이 보다 다양하다. 가족별거수당과 단신부임수당, 귀가 교통비등 시외전화요금을 지원해주는 회사가 늘고 있으며 단신부임자에게 냉장고를 비롯한 생활기구와 주택을 대여해주기도 한다(柚正孝子 外 3人, 1993).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실비로 기숙사를 마련해주거나 아파트를 제공한다. 그러나 학교나 관공서에서는 이러한 배려는 없다. 따라서 한가정의 수입원이 두 가지 이상이라도 합리적인 가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사례에서는 Pahl(1989)의 유형에 비추어 본 결과 전액부인(사례 6, 7)이나 남편의 관리(사례 4)는 3쌍이며, 할당방법은 3쌍이고(사례 1, 3, 11), 공동관리형은 한사람도 없으며, 개별관리형은 6쌍이다(사례 2, 5, 8, 9, 10, 12).

첫째의 전액 관리유형중에서 2쌍은 남편의 소득중 일부를 제외한 전액을 부인이 관리하며, 1쌍은 남편이 관리한다고 한다. 두째의 할당방법은 4쌍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수입을 모두 한데 모아서 예산을 세워 생계비, 저축 등으로 하고 각자의 생활비를 지출한다. 이 경우는 부부가 수입액을 알고, 예산을 세울 때 함께 의사결정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함께 해결하며 부부가 서로 협조하므로 가정의 모든 경제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째의 공동관리형은 한 사례도 없다. 이는 부부가 떨어져서 각자의 생활을 유지해가므로 적합하지 않은 형식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네째의 개별관리형은 5쌍으로서 두사람 각자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출을 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유형이다. 이 경우는 상대방의 소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어디에 지출하는지 간섭하지 않는다.

> "부부가 자유스럽게 금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항상 목돈은 마련되지 못하여 집장만도 늦어 졌다고 한다."(사례, 9, 12)

각자가 임지에서 생계비를 지출하고, 본가에서도 일정한 비율로 생계비를 지출하고 저축도 각자가 하게 되므로 부부서로가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부부공동을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가계관리 형태로 보아 개별관리유형보다는 방법을 달리하는 공동관리유형등 보다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3) Commuter Marriage의 가사노동

서울거주 20-30대 맞벌이 남편의 가사참여율이 전체 가사노동의 26%를 밑도는 것으로 밝히고 특히 전문직여성의 남편들이 더 가사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숙, 1997). 이는 전문직에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일수록 의식이 더 개방되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말해준다. 여성들이 직업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의 책임도 혼

자지고, 남편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유학중 결혼한 사례5는 유학생부부시절 남편은 설거지도 해주었고, 아이에게 우유도 잘 챙겨주었다. 그러나 귀국해서는 어쩌다 한번 부엌에 들르던 남편의 발걸음이 뜸하다 싶더니 어느덧 끊겼다 맞벌이 가정의 문제는 개인의 의지나 결심보다는 사회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느낀다. 미국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던 남편이 한국에 와서는 집안일은 여자의 것이라는 상식뒤로 편안하게 숨어버렸다."(사례 5)

이렇듯 가사노동은 여자의 일이라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사회적인 환경으로 되어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Commuter Marriage 25년째인 부인은 젊은 시절에는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서 한꺼번에 시장 보아 음식장만하고, 빨래하고, 일주일동안 입을 남편의 와이셔츠 다림질하고, 자녀의 학교방문 등 하루에 12-14시간이상씩 가사노동을 하여도 지칠 줄 몰랐으나 이제는 힘들고 피로하여 파출부를 채용하였으나 효과는 적고,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주말만 되면 성장한 자녀와 남편은 주중에 엄마의 빈자리를 지키는 가사노동에서 해방되었다는 듯이 전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주말과 휴일이 없는 슈퍼 우먼이라는 것이다."(사례9)

이와 같은 사례에서 나타난 것도 Pleck(1985)이 지적한 것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편들은 자기의 아내를 슈퍼-우먼쯤으로 보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부인들이 서울집에 올라오는 주말에는 남편이나 자녀들은 가사노동에서 해방이나 된 듯한 느낌으로 전혀 가사분담을 하지 않으며, 집안의 대소사의 일이 많아 항상 쫓기는 기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임지에 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되어 홀가분한 기분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 가사노동기술이 전혀 없는 남편들은 3쌍(사례 4, 7, 11)으로서 이들은 임지에서 하숙을 하거나 파출부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남편들도 가사노동에 대하여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가사노동기술이 부족하고 부인을 슈퍼우먼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여자의 일만이 아니라는 의식의 전환과 기술습득에 대하여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Commuter marriage는 가정지향성과 직업지향성을 가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기위해 주 3일이상 별거하면서 왕래하는 별거결혼가족이라고 하였다. 이 정의에 맞는 사례 12쌍을 대상으로 별거의 결정요인, 장·단점 및 가정경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Commuter marriage를 결정하게 된 주 요인은 부인의 직장이다. 이는 종래 남편의 직업이 동기가 되는 주말부부가족과는 구별된다. 부인이 대학교수로서 직업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평생직장의 개념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결혼전부터 영원한 별거결혼가정이 될 것 같아 망설인 사람도 많다. 남편과 주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결혼후에 대학교수가된 부인들은 별거결혼가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경영은 여성자신의 책임임을 강하게 느끼고 주중 3일 정도는 가족과 지내면서 별거결혼가정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가정경영행동중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것과 전화통화로서 교통비나 전화요금에는 신경쓰지 않는다. 자녀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취업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성장한 자녀들과의 관계는 긍정적이다. 가계관리는 공동관리형은 한사람도 없으며, 개별관리형이 6쌍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Commuter marriage의 특성을 반영한 것 같다. 즉 부부 서로가 직업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하고, 거주지와 생활비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개별관리형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가사노동은 다른 전문직 여성에서처럼 주로 가사고용인이나 친정·시어머니의 도움이 대부분이다. 남편은 가사기술이 부족하고 부인

의 직업성은 인정하나 가사가 여자의 일이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으로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보아 Commuter marriage는 직장생활 영역과 가정생활 영역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전문직 여성들의 과중한 역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가정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주부의 역할 대리자가 필요하며 어머니, 아내, 며느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죄책감이 있다. 그러나 전문직 여성은 가계비의 이중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는 큰 이득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전문직 여성은 경제적인 면보다 자아실현에 더 큰 직업의 의의를 부여하는 것 같다. 따라서 모든 기관에서는 전문직 여성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남편 또는 부인 부재시에도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가정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김경은, 정옥분(1998), 주말부부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1호, 35-48.
2) 김태현, 박숙자(1992), 한국의 비동거가족연구, 가족학 논집, 4집, 45-72.
3) 문숙재, 조성은(1995),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방법론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4호. 139-150.
4)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5) 이연숙 외 3인(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6) 임정빈외 7인(1996), 서울시 아파트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3호. 327-342.
7) 임혜경, 임정빈(1995), 취업주부의 직업-가정 갈등,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만 족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3호, 85-98.
8) 서동인(1985),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의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손승영(1995), 한국사회의 변화와 가족, 한국가족 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 한국사회연구회편, 사회문화연구소, 23-56
10) 조복희, 현온강(1994), 한국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5호, 97-108.
11) 조성은(1997),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2) 한지수, 이연숙(1998), 도시맞벌이부부의 금전관리와 경제생활주도권의 유형의 측정방법 및 실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2권1호, 1-12.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 한국가족기능과 역할변화.
14) 山田正喜子(1987), アメリカの ビジネスエリト, 東京日經新書, 41.
15) ホ-ン川嶋瑤子(1988), 女たちがルえる アメリカ 岩波新書, 27-31.
16) 柚正孝子 外 3人(1993), 共衝き家族 家政教育社.
17) 兵谷萬美子 역(1987), デュアキヌリア夫婦, 新しい 家族モゲルお求めて, 家政教育社
18) Blair, S. L. & Johnson, M. P.(1992), Wives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Aug.), 570-581.
19) Gerstel, N & Gross, H.(1984). Commuter marriage: A study of work and Family' NewYork: Guilford press 183-207.
20) Gross, H.(1980). Dual-career couples who live apart: Two-typ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 562-576.
21) Groves, M. M, & Hom-wingerd, D. M.(1991) Commuter marriage: Personal, family and career issues, sociology and social reserch, 75(4), 212-217.
22) Kalleberg, A. L.& Rosenfeld, R.A.(1990), Work in the family and in the laber market: A cross-mational, reciproc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May), 331-346

23) Maples,M. F.(1981), Dual career marriages: Elements for Potential sucess,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September), 19-23.

24) Pahl, J(1989), Money and Management, New York: ST. Martin's press.

25) Pleck, J.H. (1985) Working wives/working husband, sage publications.

26) Schultz, J. B. ,& Henderson, C. G.(1985),Family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implications for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2, 33-47.

27) Winfield, F. E.(1985), Commuter marriage: Living together, Apart, Columbiauniversity press, 14-18.